

국가안전대진단, 도민 안전위험 신고 높여

4,310명 참여 1821건 신고...1,656건 현지 시정, 보수·보강 조치

75일간의 국가안전대진단이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활동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평이다. 2일 전북도는 이번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18,664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2,477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안전신문고에 가입한 도민은 4,310명이었고 신고건수는 1,821건으로 안전사고 예방 신고에 도민들의 동참을 확산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월5일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 건축물, 해빙기 점검 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해 18,664건을 점검한 결과 1,091건(5.8%)을 지적하

고 현지시정 408건과 보수보강 536건, 정밀진단 86건 등을 조치했다. 특히 재난취약시설(D·E 등급) 66개소 중 정유 유정고 군산시정 3천사와 같은 교량, 공공청사 5개소에 대해서 철거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했다.

또한 진안 모래재터널 균열 정밀진단과 완주 삼례민간아파트의 외부 헬스 보수·보강 민간 영세 공동주택 256개소에 대한 민간전문가 지원 중간 점검 등은 이번 국민안전대진단 기간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다.

이번 캠페인 동안, 도민들은 스스로 안전신문고 앱 등을 사용해 안전취약요소 신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민

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안전대진단 기간동안 4,310명의 도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가입해 1,821건을 신고하고 이중 1,656건을 수용, 현지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전국 도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도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나타낸다.

이어 진단 기간 동안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등 기관장들의 현장행정도 활발히 이뤄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대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수·보

강 조치를 하는 한편 민간 영세아파트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진단 기간 점검방법은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해 자체점검 대상은 특정관리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관리시설 중 A, B등급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점검했다.

또한 민관합동점검 대상은 특정관리 시설물과 시특법 관리시설 중 D·E등급, 캠퍼스 등 사각지대,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시설의 15% 범위내에서 표본 추출해 점검했다.

/정영수기자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종합분석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 재원이다.

올해 기준 21조원으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한다.

그동안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물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돼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

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다.

첫 단계로 올해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송지사 현안 해결 국회·총리 방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지원법 국회 통과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국비지원 정부차원 관심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9대 마지막 임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지원법(이하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도의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탄소법은 지난 연말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률안이 자동으로 폐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기에 도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치적 문제로 기업활동저해법(일명 원상법)과 테러방지법과 연계돼 무산된 탄소법은 두 법안과 달리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송지사는 2일 국회의 원회관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을 방문했다.

송지사는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여야 쟁점 없는 법안이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정 주요 현안들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도가 지원을 요청하는 당면 주요 현안으로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 지원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라선 KTX 증편(10회) 운행 등 SOC 국가계획 반영,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메가탄소 밸리 구축 등 5개 예타 통과 및 진행,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연금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등이다.

송지사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방문해 면담을 갖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8월로 예정된 새만금 후보지 현지실사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 최종 후보지 선정 등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동서2축 도로, 남북2축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필요성 및 지원을 요청했다.

/정영수기자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기념우표 70만장 발행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세계 최초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로타리의 107번째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우표 1종 70만장을 2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표는 한국의 대표 궁궐인 '경복궁'을 한국 고유의 5가지 전통색상인 '오방색'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한국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고민형기자

도시가스요금 전년 대비 23.9% 161.6원 인하

국제적 저유가로 전북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올해 1월 9.7%, 3월부터 10.3% 인하에 이어 5월부터 6.15% 인하되면서 올해만 전년 대비 23.9%가 내렸다.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요금은 702.6원/㎡에서 674.0원/㎡으로 28.6원으로 인하됐다.

특히 전년 대비 161.1원이 인하됨에 따라(원료 평균 50㎡ 사용 기준) 가구당 부담액이 8055원(연 9만6660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은 최근 유가 하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하면서 낮아진 원료비가 천연가스 도매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형기자



수도권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한 설명을 듣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일 서울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전북출신 수도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함께 도정운영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해

전북도,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2일 전북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을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우선,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처량, 예금·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신용정보의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오는 6월8일에는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수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나에게 날개를 달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달다!
◎ 소통과 감성의 사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강의양쪽 전담교수 소개〉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 (도론과면접) 전담교수
·면접지도 전북 1호 강사
·한국음반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라더쉽협회 대표
·스피치&라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355원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반인협회, (사)한국음반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